

“즐겁게 일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 믿습니다”

옥천제과기계 고건상 대표

추위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11월, 겨울 추위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의 첫발을 내딛은 옥천제과기계의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중앙제과기계산업이 무너진 뒤 고건상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과 함께 회사 살리기에 뜻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중앙이라는 이름 대신 옥천으로 새롭게 제과업계의 역사를 다시 장식하는 고건상 대표의 애사심은 지치고 힘든 직원들을 힘차게 독려한다.

〈취재·김영주 / 사진·안성철〉

지난 1월 제과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 사건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기계업체였던 중앙제과기계산업이 부도처리된 것이다. 제과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앙제과기계산업의 향후 진로를 놓고 염려했지만 딱히 이렇다할 해결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 9월 중앙제과기계산업은 사람들의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고건상 대표를 주축으로 옥천제과기계로 거듭났다. 제과업계에서 의아해할 정도로 별 인연이 없었던 고대표가 중앙제과기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직원들 때문이다. 제과기계와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10년 넘게 중앙제과기계산업을 옆에서 지켜본 그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중앙제과기계산업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뚝뚝 뭉쳐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는 직원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중앙제과기계산업의 인수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더더욱 자신 없어했죠. 이런 저를 움직인 것은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매달리는 직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어느새 애정이 생겼나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고대표는 너무나 뜻밖의 결정을 한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듯 당시를 떠올리며 연신 너털웃음을 터뜨린다.

옥천제과기계로 거듭난 지 이제 3개월 남짓 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회사의 체계를 잡아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도로 인해 손상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회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건상 대표가 선택한 처방은 웃음이다. 옥천제과기계를 알리는 새로 제작한 로고에도 이 처방이 쓰였다. 톱니바퀴는 기계업체를 나타내고, 그 속의 스마일 표정은 매일 웃으면서 일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나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 이건 즐겁게 일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한테 ‘웃자’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그는 아침마다 웃는 얼굴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를 시작한다. 오너 입장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자신이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도 이 시간에 전달한다.

고건상 대표에게는 회사 경영을 할 때 꼭 지키는 철칙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철칙은 매출을 비롯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 고건상 대표(사진 맨왼쪽)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중요시한다. 그가 직원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것은 '웃음'이다.

또 하나의 철칙은 무조건 당일 A/S 원칙이다. 그는 제품을 파는 것보다 고객들의 신뢰를 쌓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 A/S는 고객의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므로 되도록 A/S를 당일에 완벽하게 끝내도록 했다.

“A/S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A/S의 내용을 데이터화해 파악해 보면 우리 제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자료는 다음 제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고대표는 옥천제과기계 명의로 ‘5% 통장’을 만들었다. 이 통장은 기술 개발을 위해 매달 매출액의 5%를 공제해 통장에 적립시키고 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손쉽게 신제품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이다. 적립금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해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개발 없이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고객이 먼저 찾아와 사갈 수 있을 만큼 제품을 잘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기술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만든 것이 바로 ‘5% 통장’입니다.”

당분간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확률이 높지만 고건상 대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노력하고 때를 기다리면 옥천제과기계는 점점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앞으로 발전하는 옥천제과기계를 지켜봐 달라는 고건상 대표의 힘찬 목소리에서 머지않아 옥천제과기계는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탄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